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명실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르면대로
 내리는 이자도 돌려준다
 ■고객은 언제든 영수사서
 조출할 수 있음
 대우증권 제공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김원집/편집장: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4·11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표몰이를 위한 공약이 봇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말의 홍수를 이룬다. 공약(空約) 티후보 비방등 난무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업보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말 많은 자를 남들이 두려워 하거나, 그중에서도 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果報)를 받는다. 스승·친구·형제·처자·노비(奴婢) 등의 친목이 다 견고해서 남이 깨지 못할 것이다. (정법염처경)

사람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미약한 입 자키를 새운 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사나운 불꽃은 세상의 재물을 태워, 나쁜 말의 불꽃은 일곱 가지 상스러운 재물을 태우는 까닭이다. 이같이 온갖 중생의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오는 타이므로, 입이아말로 풀을 헤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다. (보은경)

세상의 온갖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갖바닥에 저물어 도끼가 생기게 되어 있다. 즉, 입으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함으로써 도리어 그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기세인본경)

만약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입으로 나쁜 말을 한다면, 이는 항상 날카로운 칼로 제 몸을 베고 있는 격이 된다. 악인을 창양하고 선인

을 열람해서 입으로 온갖 허물을 짓는다면, 능히 나과(樂樂)를 초래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로 여러성자를 열람하면, 앞무속 속에서 백천년을 지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이율)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방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보살의 바리이죄에 해당한다. (법광경)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 않음,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구를 만들지 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음, 그곳엔 가르침을 설하고 찬양에 태어나지 말라. (보살본연경)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하고, 거절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말이나, 너는 진실한 말을 익히도록 해라. (대집경)

거절한 말을 멀리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꾀차 함께 해하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히티경)

관련기사 2·3면

법인 종단등록 의무화

조계종 총무원 제·개정 7개법안 입법예고

'법인관리법' 증회통과여부 주목

조계종소속 중앙종무기관이 법인종단등록 의무화 관련 법안(제120회 입법예고)을 제정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관리법(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 사찰문화재관리법(제정안), 사찰사당등록 및 관리법(제정안), 산중총회법(제정안), 승려법(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법(제정안) 등의 7개법안(조계종보) 2일회에 입법예고했다.

법인관리법(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관리법(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 사찰문화재관리법(제정안), 사찰사당등록 및 관리법(제정안), 산중총회법(제정안), 승려법(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법(제정안) 등의 7개법안(조계종보) 2일회에 입법예고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사찰재산 산중 부동산의 보존, 관리와 처분 방침제정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준을 규정, 유류재산방지과 고장자산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 미비로 인한 땅살부동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공포과정에서 참정권 제한으로 논란이 있었던 산중총회법은 총회 구성원으로 재적교구본사를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려는 총회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총무원은 또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분담금의 종류를 중앙, 관할교구, 특별분담금 등 4개로 분류하고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말사의 분담금납부를 줄이도록 했다.

승려법에서는 그동안 이적본사주지의 승인으로 재적본사주지 승인이 가능했던 것을 총무원장이 승인하도록 승려의 이동

입법예고 7개법안

- 법인 관리법
- 사찰부동산 관리법
- 문화재관리법
- 사당 등록·관리법
- 산중총회법
- 승려법
- 분담금 납부법



위덕대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위덕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95년판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94년 10월 창간호부터...150부 한정 판매

현대불교신문 첫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자 창간호부터 99호(1995년 12월 27일자)까지 19호간 도본을 합본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매주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명사들의 이야기와 만나는 참신한 기획, 정확한 불교계 뉴스, 지구촌 소식, 사회 재반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주는 명쾌한 칼럼 등이 담긴 이 합본집은 현대 불교사의 흐름을 종합적 이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사불교와 위문고리 그리고 신행의 결집이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 함한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을 권해 드립니다.

모수책내용: 창간호~99호(14개월분)
 크기: 5만원(우송료 별도)
 신청접수: 본사 총무부 전화 737-8881

불교방송 정상화 '청신호'

사장에 전문경영인 조해형씨 선임



조해형 사장의 선출과 함께 진정한 불교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은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화합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회 총회)는 지난 12일 불교방송 신임 사장에 조해형씨(62, 나리기 회장)를 만장일치로 선임함으로써 1년여간 괴로운 영의 우려를 낳았던 불교방송이 정상화 되기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4면)

불교방송은 지난해 초 일련의 방송사태로 인한 사장 퇴임 이후 자조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전국방송망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불교방송이 삼십

진흥원 '불교매스컴 센터' 설립

이르면 가을 개원...방송 전문인력 양성

다가오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송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불교매스컴 센터(가칭)'가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문을 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문각)이 설립 추진중인 불교매스컴 센터는 미래의 방송인들을 꿈꾸는 수준 높은 불교 인재를 키워내는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방송교회의 탄탄한 기초를 쌓는 획기적인 포교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교매스컴 센터가 앞으로 강의하게 될 교육프로그램은 방송법, 광고법, 이력서작성, 리포터, 구성작가, 영화시나리오작가, 카메라, 음향, 방송편집, 컴퓨터그래픽 등.

진흥원은 이같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국대,

위덕대 등 불교종합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종합대학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영상산업에 관심있는 불교인재들을 양성해 불교방송 인문매체에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방송사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대프로덕션과 같은 불교관련 영상프로덕션의 지속적인 설립에 대비, 불교매스컴 센터를 통해 배출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변산온천에서 태고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한국 최고의 자연휴양지 변산반도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경험하십시오.

은 변산반도의 심장

변산온천에 위치하여 바다, 산, 계곡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변온천입니다.

변산에서의 휴양 변산온천에서 시작하십시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1번지
 사무실: TEL(0683) 82-8539, 83-8539
 FAX(0683) 83-9555
 리조텔: TEL(0683) 82-5390~2

고품격 레저문화의 신기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동명소인 채석강, 해수욕장, 내소사, 직소폭포, 개암사, 천문대, 칠봉암 등으로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한 차원 높은 휴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변온천

이론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채석강, 변산해수욕장을 바로 곁에 두고, 산과 계곡의 신비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매머드 자연 휴양지로 국내 최초의 해변 온천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탄산나트륨, 알칼리성 수질의 온천수가 공급되는 온천탕은 무색 투명하며, 피부미용 및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부인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천혜의 온천수입니다.

편리한 교통망, 최고의 서비스

서울에서 쉽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서울-태인C-변산온천)와 3시간30분 소요 국내 최고의 해변 드라이브 코스,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최상의 인락함을 느껴보십시오.